

# 공예적 융합(Craft Consilience)의 가구디자인 연구<sup>1</sup>

-자수기법 및 민화를 이용한 가구디자인-

송윤섭<sup>2</sup>, 최 기<sup>†3</sup>

## A Study on furniture Design of craft consilience<sup>1</sup>

- Furniture design using embroidery techniques and folk tales -

Yoon-Sup, Song<sup>2</sup>, ki, Choi<sup>†3</sup>

### ABSTRACT

With changing systems of wealth creation around the 21st century, crafts(traditional and industrial crafts) are affected by the trend of changes or lead the trend, that is to say, a turning point of paradigm has come.

Values of crafts give the value of users, and the tradition and modern coexists in the trend of times changing from the tradition to the modern so crafts artists' works are diversified and used in design industries.

Based on a place of expression showing various beauty of crafts, identity of design is established through 'Craft Consilience'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master craftsman, crafts artists, crafts industries, and crafts departments.

As master craftsman and furniture designers meet together to mix master craftsman's idea with designers' idea, the new Korean crafts furniture is suggested.

**Keywords:** Craft Consilience, furniture, design.

---

1. 논문접수: 2010. 010. 15.; 심사: 2010. 02. 08.; 게재확정: 2010. 07. 14.

2. 중앙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박사수료 Dept. of Design,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Korea.

3. 강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부교수 Department of Interior&Furniture Desig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amcheok, Korea.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Ki Choi(E-mail: woodpeople@kangwon.ac.kr).

## 1. 서론

한샘, 에넥스, 리바트, 에몬스, 뱀스, 장인가구 등의 많은 한국가구기업이 다양한 디자인을 내세워 자사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여 경쟁하고 있지만, 정작 브랜드명을 제외하면 누구도 구분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오직 컬러, 조명, 가격, 원가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경쟁하고 있다.

독일은 다양한 하드웨어 개발로 실용적인 가구의 강국으로 부각되고, 이탈리아는 가업계승의 탄탄한 전통성과 창조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내세워 가구 명품을 만들며, 일본은 좁은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가구 디자인의 특색으로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가구 디자인의 특색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한국가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야나기 무네요시는 목공예품 중 영국의 것과 동양에서는 조선의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예찬한다. 이렇듯 과거의 조선 목가구에 찾을 수 있는 한국가구디자인 정체성을 다시 찾을 수 없을까? 그러기 위해 현 시대의 다원화 다변화되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의 디자인 정체성을 위해 각 나라에서, 기업, 개인작가에 이르기까지 정체성을 확립하고 특징과 특색을 부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통양식을 현대 가구디자인과 결합하는 공예의 융합(craft consilience)적 시대의 흐름으로 공예 가구 분야에 새로운 연구체시를 통해 한국 가구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함으로써 향후 감성마케팅을 적용한 공간계획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가구디자인의 특징을 전통적인 양식의 공예 요소의 연구를 통해 창조적 융합의 방법으로 연구의 개념을 이끌어 내는 전개과정 사용하고자 한다. 산업과 공예의 기술적 융합으로 하이테크와 공예소재의 만남을 통해 소재의 융합을 통한 가구디자인을 제시한다.

소재의 융합을 위해 한국의 전통 소재 중 다양한 문양으로 이루어진 자수와 현대적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기법의 민화그림을 융합하여 가구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예 융합의 가구디자인을 정의하고, 창조적 공예융합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 적용하고 그 결과를 작품연구를 통해 타당성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최근디자인 경향 및 공예적 융합(Craft Consilience)의 개념 정의

디자인 산업의 최근동향을 보면 노동집약적 사업이 주였던 우리나라의 산업은 발전을 거듭해 최근 기술 융합적 산업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걸맞게 공예, 디자인산업도 변화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품의 외관 지향적 단계에서 최근에는 삶의 질 향상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인간 지향적 단계로 발전해 왔다. 최근 감성소비시대의 도래는 인간 지향적 디자인이 국가와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는데 주요한 환경으로 작용하였다. 소비자의 개인별 취향에 부응하는 상품

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감성에 호소하는 디자인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한 대표적인 글로벌기업들은 CEO와 별도로 CDO(Chief Design Officer)를 임명하여 디자인경영에 주력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또한 디자인업계의 통합·컨설팅 기업화 추세가 시도되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단품위주의 디자인용역 판매업체에서 시장조사, 디자인개발, 마케팅 등 디자인경영에 필요한 종합 디자인컨설팅 업체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리고 패션·생활용품 디자이너가 휴대폰·가전제품·조명디자인에 진출하는 등 디자인 분야 간 교류 현상도 확대되고 있다.

예로 앙드레킴이 전자·조명디자인, 이상봉이 휴대폰·침구·담배디자인으로 디자인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2007년 서울 리빙디자인 페어 디자이너 초이스 부스 전시에서 대한민국 대표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공예장의 만남을 통한 한국의 미를 담은 공간디자인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좋은 예가 되고 있다.

21세기 학문은 자연과학과 창조적 예술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으로 양분될 것이며, 사회과학은 생물학이나 인문학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통섭'의 개념이다. 통섭은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의 저서 '통섭(Consilience)'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유래되었으며 최근 학문의 대통합 개념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용어이다. '서로 다른 현상들로부터 도출되는 귀납들이 서로 일치하거나 합쳐 만든 말이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식들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것이 '통섭'의 기본 취지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이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며, 이해란 본래 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Fig. 1)는 통합, 융합, 통섭의 언어적 정의와 의미를 비교한 표로서 통섭의 의미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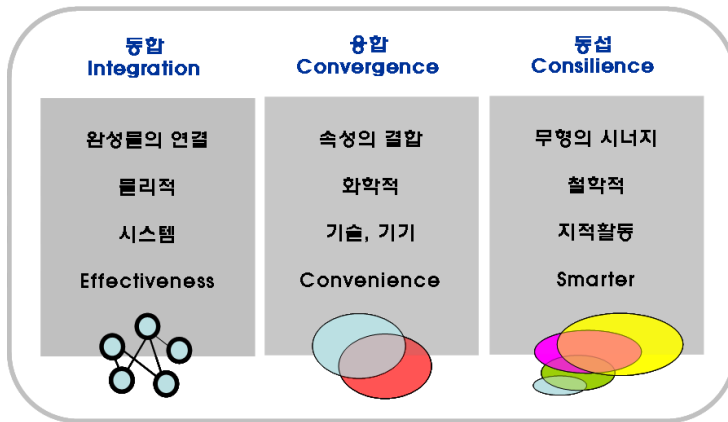


Fig. 1. Integration, Convergence, Consilience Comparison of language.

창조적 융합(통섭)-Consilience는 라틴어로 '뛰어오르다', '넘나들다'란 어원처럼 컬러와 소재, 패턴, 패턴 등의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두 가지 이상 트렌드의 재구성과 시공간의 연계성이란 문화적 재구성을 통해 개성적인 스타일을 선보인다. 이러한 조화와 융합이 우리의 감성과 어우러지며 진정한 창조를 이루게 된다.

가구디자인 분야에서의 창조적 융합으로 공예 소재의 창조적 융합, 통섭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예술적 성격이 강한 미술의 한 분야로서의 공예 순수성 보다는 디자인 아트의 성격으로 가구디자인의 독창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전통에서 현대로 변화해가는 시대의 흐름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여 우리나라의 전통공예를 이용한 창조적 융합의 가구디자인 개발가치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4. 공예 융합의 가구 실제 적용 디자인 개발

##### 4-1 자수기법을 이용한 가구디자인

자수, 그 아름다운 감동 “매니큐어조차 칠할 줄 모르던 한국 여인의 그 소박한 손톱 끝에서 어떻게 저리도 다양하고 사치스러운 색깔과 무늬를 만들어 낼 수 있었는가.” 어느 책 서문에 쓰였던 이어령(전 문화부장관) 선생의 자수예찬은 비단 우리 한국사람 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동아시아박물관장 로저 게페는 “한국의 평범한 여인들이 이뤄낸 자수를 보노라면 환희와 감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자수는 만들어진 작품보다는 바느질 과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바느질 솜씨만큼이나 오랜 정성과 인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자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인고와 세월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다.

자수기법을 이용한 가구의 특징은 한국의 전통자수인 고전미와, 목대의 모던함이 어우러져 심플하면서도 자수의 화려함이 돋보이는 우리의 명품가구이다. 세월이 흐르고 손때가 묻을수록 더 멋스러워지는 자수가구는 대대로 물려주는 의미 있는 가구이며, 전통과 모던의 조화 고유의 정서와 편안함을 주고 작품에 가까운 품격가구 추구한다. 작가와 장인이 만든 가치 있는 수작업 작품, 오래 지닐수록 소장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가구 고급소재와 내구성 수입명품 이상의 가치를 지닌 우리 명품가구이며, 전통과 현대적 결합의 합리적이며, 창조적 융합(consilience)을 잘 나타내는 디자인의 가구 사례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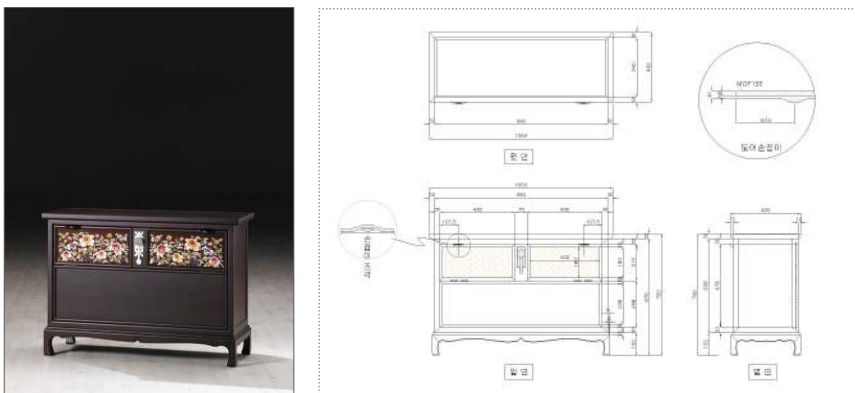


Fig. 2. Lotus + Console & Drawings.

자수가구의 특징은 자수문양의 의미가 주거 공간속에 가구로 자리 잡아 그 의미를 더 한다. 그 예로 (Fig. 2)의 부용화 반단이 콘솔의 경우에서 잘 찾아 볼 수 있다. 자수문양 부용화 꽃은

봉우리와 색상이 화사하여 모란꽃(목단꽃)과 더불어 꽃 중에서도 부귀영화를 축원하는 뜻을 담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화려한 분위기를 주어 모란꽃(목단꽃)과 함께 자수로 표현 되어 혼례함이나 보석함에 많이 쓰였다. 주거공간의 거실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한 부귀영화의 반단이 콘솔은 조선 목가구 반단이 형태와 부귀영화의 의미가 잘 어우러져 집안의 분위기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예이며, 부용화 꽃의 부귀영화 의미는 가구판매를 위한 셀링포인트(selling point)가 되기도 할 것이다.

주상복합 및 고급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가정용 가구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혼례용 가구 디자인도 소재의 유행에 따라 변화가 심해지면서 디자인, 라이프 스타일의 주기가 예년에 비하여 매우 짧아졌다. 혼례용 가구의 고가제품은 이탈리아 및 유럽에서 수입되고, 저가 제품은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등 가구 산업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의 가구 생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0년대 초기의 혼례용 가구 디자인은 동양의 이미지가 많이 반영된 쥘 스타일이 유행을 이끌면서 진한 밤색과 백색의 콤피 제품과 월넛(Walnut) 색상이 유행하였고, 2000년대 후반에는 밝은 색 계통의 아이보리, 백색 하이그로시, 꽃문양의 패턴이 인기를 얻었다. 또한 재개발과 새로운 아파트 입주로 인한 드레싱 룸(Dressing Room)의 증가로 장롱류의 수요는 급속히 감소하였고, 거실용 가구인 소파, 거실장, 장식장, 식탁 등에서 디자인 중요시한 소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Fig. 3.) 부용화 침실가구는 이런 요즘의 트렌드와 전통의 아름다움이 잘 조화 된 자수 가구로 신혼의 혼례용부터 40, 50대에 이르기까지 안방을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 가정용 가구이다.



Fig. 3. Lotus + Bedroom & Drawings.

(Fig. 4) 모란서랍약장의 모란꽃(목단꽃)은 옛날부터 꽃 중에서 가장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꽃으로 꼽혔다. 이런 이유로 손자수 중에 모란꽃을 가장 많이 수놓았다. 모란꽃 그림을 선물하는 것은 받는 분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거실에 포인트 가구로 그 의미와 형태가 아주 적합하다.

또한 (Fig. 5) 은사향갑 거실장 세트(Living room chest set)는 조선목가구의 문갑 스타일로 모던하면서도 은사향갑의 깊은 의미와 어우러져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 은사향갑은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패용한 향을 담은 향갑노리개는 구복장수 등의 인간의 기본적 염원을 담은 물건이나 문양을 조각하여 만든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향갑노리개에 나오는 박쥐를 소재로 고급스런 실크바탕천위에 은사의 정교한 자수시법과 실크실의 화려한 색감이 만나 독특한 입체감을 보여준다. 은사와 실크사라는 실 종류의 조화, 굵고 가는 실 굵기의 조화는 자수에서만 맛볼 수 있

는 미감이다. 이러한 독특함이 목재에 합하여 더없이 중후하고 고품격의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Fig. 4. Peony blossoms  
+Cons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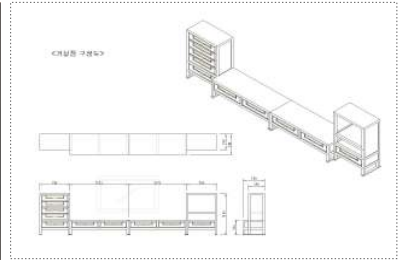


Fig. 5. Silver thread incense box Bedroom & Drawings.

블랙&골드의 화려한 느낌이 현대 주거공간의 명품가구로써 자리 잡을 수 있는 금사완자문양을 이용한 디자인에서는 점, 선, 면 이라는 2차원에서 보여 질 수 있는 기본요소의 조형적 결합을 보여준다. 일찍이 원시미술에서부터 전시대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기하학은 선사시대의 토기, 암각화, 청동기 문양 등에 짙은 선이나 점등을 찍어 무늬를 나타낸 것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각종의 미술품에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 이 자수는 조선시대 철제 은입사 오리개에 나오는 문양을 자유롭게 응용한 작품이다. (Fig. 6.)은 이런 금사완자문양의 자수를 이용하고 조선목가구의 순박하고 단아한 형태에 중후한 흑단과 화려한 금사의 어울림으로 럭셔리(Luxury)한 느낌을 준 서랍콘솔장과 문갑스타일의 거실 및 안방을 위한 자수가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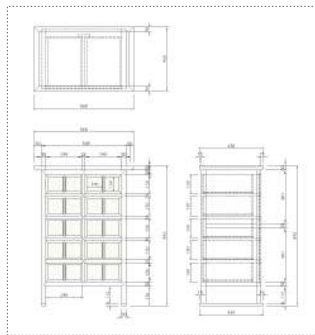


Fig. 6. The furniture design which uses the Golden tread swastika & Drawings.

또 하나의 블랙(다크월릿)&골드 느낌으로 금사거북문양의 자수콘솔가구이다.(Fig.7.) 재료는 진한 호두나무원목과 무늬목을 사용하였으며, 단아한 선과 면의 기하학적 형태와 중앙에 사각 부분과 손잡이 부분에 자수를 포인트로 적용한 콘솔디자인이다. 금사거북문양의 자수부분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대여섯 가지 색상을 보여주는 기하학적 육각문양으로 금사사이에 다양한 색실을 혼합하여 놓는 고난도 자수기법이며, 자라노리개의 등판에 놓여 진 금사거북문양 자수를 응용한 것이다.



Fig. 7. The furniture design which uses the Golden thread turtle & Drawings.

#### 4-2 민화를 이용한 가구디자인

기존가구는 완성된 제품에서 선택의 폭이 있었지만 디지털텍스타일프린팅(DTP)기법가구는 여러가지 민화문양에서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이미지를 바꿔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민화는 한국적 감성을 자극시키는 좋은 소재로써, 한국가구의 새로운 변화와 시도로 한국의 명품가구 정체성을 위한 전통과 현대적 결합의 합리적 디자인이라 생각된다. 디지털텍스타일프린팅(DTP) 기법을 이용한 가구디자인을 연구하여 제시하므로 창조적 융합의 가구디자인 가치를 더해 줄 것이다.

디지털텍스타일프린팅(DTP)기법은 폴리에스테르원단에 배접하여 기능성을 향상 시키고 디지털 프린트한 후 후처리(열처리)하여 만든 원단으로 폭: 100cm ~106cm 현장에 따라 변화 가능하고 길이: 230cm ~ 300cm 까지 제작 가능(특수한 현장에 맞추어 4m 가지도 디자인에 따라 가능)하다. 변색, 탈색이 안 되며 자연스러운 원단에서 나오는 광채와 보온성, 통기성, 흡습성 등이 우수하며 그에 반해 신축성은 일반실크에 비해 미비하다.

가구에 부착 시공하는 법은 합판면 바탕을 조정, 정리하고 원단 벽지는 시공면에 민감하므로 퍼티 등으로 평탄화(사포질) 작업을 한다. 초배접은 일반적인 초배접 방법과 동일하며, 오공본드 등 가구접착제를 사용하여 아주 얇고, 견고하게 본드 칠하여야 하며, 본드 덩어리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재단은 정미치수(여유분 없음)보다는 재단치수(여유분 있음)재단으로 1차 재단을 하고, 잠재우기 (Soaking time) 대형 프레스기에 눌러 하루 정도 잠재운다. 정 배접은 무늬맞춤을 위해 바닥에서부터 맞춤시공을 한다. 원단자체의 신축성이 거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단치수로 정배 후 이어지는 시공 시 첫 시공한 민화지에 테이프를 이음매에 미리 붙인 후 더블 컷팅하여 2차 재단 시공한다. 도장마감은 가구와 조립 전에 폴리우레탄 래커 도장 마감하고, 일반 목재와 같이 도장마감은 오염, 노후 및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내습, 내유, 내수, 내약품, 방충, 방균 및 경도 등의 특성을 부여한다. 우레탄 래커는 폴리올(-OH 그룹)과 폴리이소시아네이트(-NCO 그룹)가 혼합하여 부가반응을 일으켜 폴리우레탄 도막을 형성하며, 폴리올과 폴리이소시아네이트에 따라 특성이 다양하다. 건조된 도막은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뛰어나다.

##### 4-2-1 매화도 콘솔&거실장

호두나무 천연무늬목과 실크원단에 디지털텍스타일프린팅(DTP)기법을 사용하여 진한 월넛(Walnut)나무 컬러와 오렌지(Orange) 컬러의 강렬한 느낌을 주는 매화도 콘솔(Fig.8.)과 매화도 거실장(Fig.9.)은 한국 창살문양을 도어와 서랍전면에 결합하여 단아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의 느낌을 준다, 그 의미에서도 매화도는 만물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꽃이 피기 시작하므로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삼았으며, 또한 사랑을 상징하는 꽃 중에서 으뜸으로 여겨, 시나 그림의 소재로도 많이 등장한 의미를 전달한다.

매화도 민화를 이용한 가구는 창밖으로 한 폭의 그림 같은 매화 풍경이 보이는 느낌의 콘솔과 거실장으로 단순화 되고 딱딱하기만 한 현대 주거공간 속에서 회화적 느낌을 전달하는데 특징이 있으며, 굴하지 않는 선비의 정신까지 부여한 새로운 시도의 현대적 디지털텍스타일프린팅(DTP)기법의 민화 가구디자인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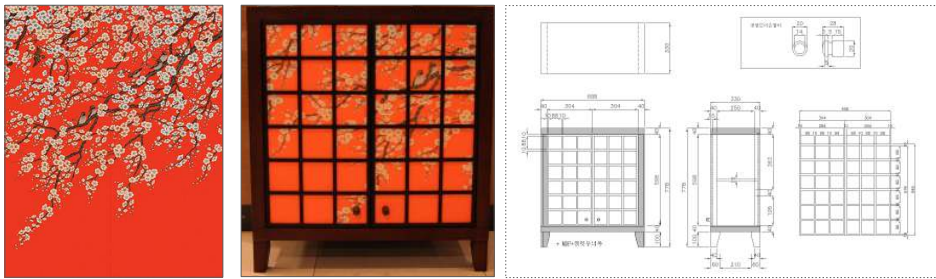


Fig. 8. The furniture(console) design which uses the apricot flower & Draw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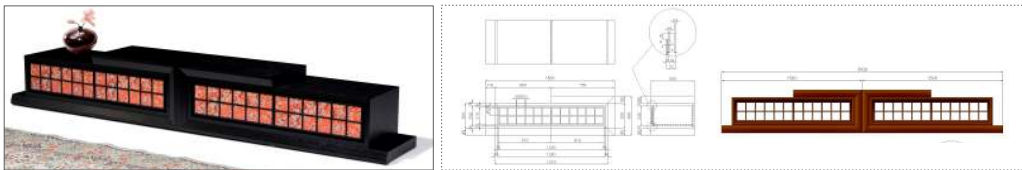


Fig. 9. The furniture(Living room chest) design which uses the apricot flower & Drawings.

#### 4-2-2 초충도 거실테이블&식탁

초충도는 옛날에 蟲(충)이라 하면 뱀 거북이까지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이 많다. 따라서 초충은 풀과 벌레 보다 풀에 사는 벌레 즉 곤충이란 뜻으로 많이 쓰인다. 그림에서도 초충도는 벌레에 비중을 두고 묘사하다 보니 자연스레 바탕, 배경으로 풀도 그려지고 더욱이 미적으로 꽃 풀에 그려지곤 한 것이다. 따라서 그림이 묘사하는 것이 비중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부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꽃그림이라도 풀꽃이고 초충(곤충)이 주제로 그려져 있으면 초충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초충도를 이용한 거실 테이블(Fig.10.)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가로, 세로가 1000mm의 천판에 부착하여 딱딱한 거실 분위기를 회화적으로 변화시키며,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 용도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는 실용적 디자인이다. 식탁도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식사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천판에 초충도를 부착하였으며, 자작나무 합판의 자연스러움과 더해 새로운 느낌을 주는 식탁(Fig.1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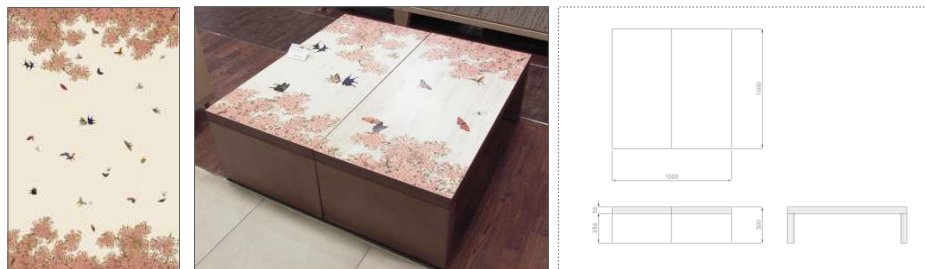


Fig. 10. The furniture(Living room table) design which uses The beginning insect & Draw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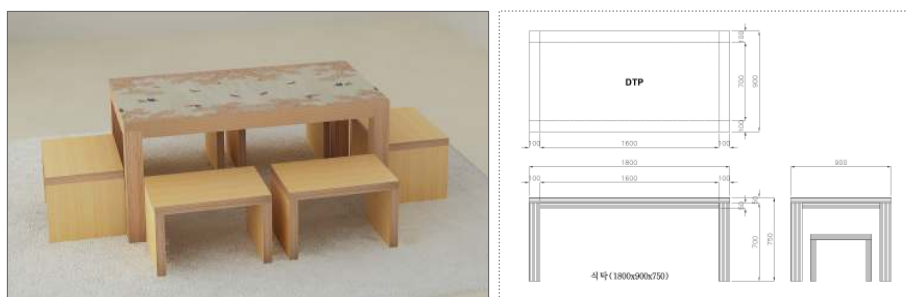


Fig. 11. The furniture(Cooktable) design which uses The beginning insect & Drawings.

#### 4-2-3 책거리(책가도) 책장&거실장

책거리(책가도)란 길거리, 굵거리 저갯거리와 같이 구경거리란 뜻으로 책을 중심으로 문방사우와 관련된 물건들을 구경한다는 뜻이다. 주로 선비들의 일상적인 생활상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 책거리에는 선비들의 애장물인 책과 문방사우를 중심으로 사랑방의 기물인 도자기, 화병, 화분, 부채 등과 선비들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술병과 술잔, 담뱃대, 악기, 활, 바둑판, 시계, 안경 등을 책 사이사이에 적절하게 배치한다. 일반 민화와는 달리 책거리(책가도) 그림은 대체로 화공들에게 주문생산되었던 그림으로 책과 기물들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된 정물화를 보는 느낌이다. 책거리는 서양화법에 의한 입체주의 기법과 투시 원근법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책이나 책장 등에서는 역 원근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역 원근법은 그림의 비현실적인 표현으로 책이나 탁자가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데 이는 책거리(책가도)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책 더미 건너편에 앉아 있는 책방주인의 시각에서 보이는 그림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이런 책거리(책가도)의 의미와 가장 잘 어울리는 가구는 책장(Fig.12.)이다. 책장에 부분적으로 문짝과 서랍전면에 적당한 비율로 접목한 디자인으로 책거리(책가도)의 중후하면서도 다양한 컬러와 진한 호두나무 무늬목의 컬러 조화는 매우 강렬한 인상을 준다. 동양적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였으며, 책거리(책가도)의 다양한 그림들이 책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또한 문갑콘솔세트(Fig.12.)는 복잡함듯하나 문짝과 서랍전면에 책거리(책가도)를 감상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수납공간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크기에 따라 안방, 거실, 부엌 등 다양한 공간에 배치 사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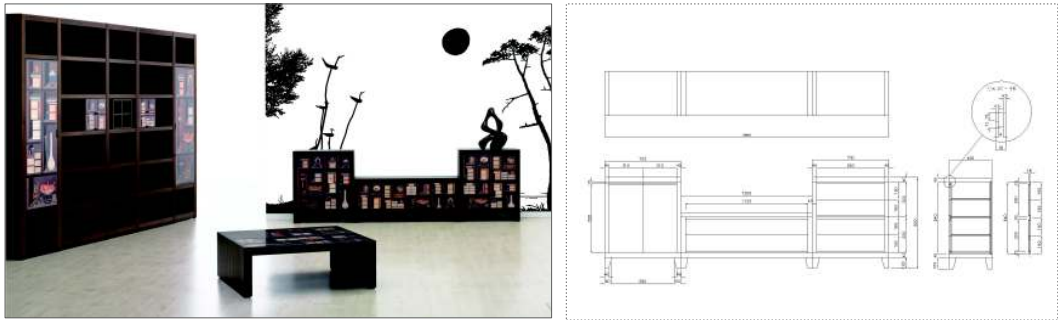


Fig. 12. The furniture design which uses the Book rack & Drawings.

## 5. 결론

이상의 이론과 실제의 적용사례들을 통해 공예적 전통요소의 자수와 민화를 이용한 다양한 가구디자인 작품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자수, 민화가구와 더불어 회화적 성격을 가진 각질공예로서 전통왕실공예인 화각을 이용한 화각가구와 나전칠기를 이용한 나전칠기가구가 있다. 화각은 쇠뿔을 얇게 갈아 투명하게 만든 판을 말하며, 이러한 화각을 이용해서 공예품을 만든다. 화각공예는 재료가 귀하고 공정이 까다로워 생산이 많지 않으며, 특수 귀족층들이 기호품이나 애장품으로 이용되었고 일반대중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회귀공예품이다. 장, 농, 사방탁자, 문갑과 같은 가구류와 작은 예물함, 경대, 필통, 화약통, 바느질자, 경상, 연상, 반짚고리, 부채, 붓대 등이 있다. 또한 나전은 일명 나전, 나진, 나감, 함방이라고도 하며, 나는 조개껍질을 일컫고 전은 장식을 의미한다. 나전칠기는 조개·소라·전복 등의 껍질로 기물의 면과 가구의 면을 칠과 함께 장식하여 완성한다. 곧 나전칠기는 옷칠한 농작이나 나무 그릇 등에 진주빛이 나는 자개조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아 붙여서 장식한 공예품이다. 최근 가장 많이 활용하고 관심을 갖는 공예적 전통양식이다. 자수, 민화, 화각, 나전 각각의 재료와 특성에 맞는 색상 및 입체감이 잘 표현된 작품은 곧 새로운 조형적 실험들의 시도로 여겨질 것이다. 다만 가구디자인에 있어서 양산적인 생산성과 가격 등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더 나은 연구가 필요하며, 그 연구로 인해 각각의 차별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공정이 까다로운 화각과 자수 보다는 현대화 된 나전칠기와 민화를 이용한 가구디자인이 더욱 산업화에 주력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상의 공예적 전통양식들은 현대적 리빙 트렌드에 맞게 잘 융합 할 수 있는 전통소재들로서 가구디자인, 제품디자인 영역에서 창조적으로 갈증해소가 될 것이며, 한국 가구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공예적 전통양식들이 산업 부문에 도입하는 것은 기업과 장인, 디자이너, 마케터, 엔지니어 등이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활발한 아이디어를 교류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또한 공예적 전통양식과 다른 산업의 융합은 고급화, 차별화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부여 할 것이다.

새로운 시도의 공예적 전통양식을 이용한 가구디자인은 과거에서도 많은 시도와 연구를 했던 과제이지만 개발과정에서 양산적인 문제의 발생으로 보다 효율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양산적인 생산성에 대한 문제에서 디지털텍스타일프린팅(DTP) 기법의 민화가구는 그 해결점을 찾는 동시에 소비자에 개성을 중요시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것을 현대에 적용하여 새로움을 창출함과 더불어 디자이너, 가구, 사용자, 사용의 환경 및 맥락이 하나의 커다란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게 된다면 좋은 가구디자인이 될 것이다.

가구디자인에 있어서의 공예적, 전통적 요소가 담아내고 있는 가치가 이용하는 사람의 가치를 부여하고, 전통에서 현대로 변화해가는 시대의 흐름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여, 공예작가들의 작품이 디자인산업에서 활용되어 변모해 가고 있으며, 그 변화는 가구디자인의 새로운 시도와 가치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공예적 전통요소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제시하는 표현의 장을 기반으로 무형문화재, 장인, 공예작가, 공예업체, 공예학과 등의 '공예의 융합(Craft Consilience)'을 통한 디자인 정체성을 수립하고, 장인과 가구디자이너가 만나 장인의 기법에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새로운 한국 가구디자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6. 참고문헌

- 강신우. 2010. 가구디자인. 미진사: 18~21, 201~207
- 야나기 무네요시 외. 심우성 옮김. 1997. 조선공예개관 동문원: 85, 86
- 에드워드 월슨. 최재천, 장대익 번역. 2009. 통섭(지식의 대통합) 사이언스북스: 40, 159, 374
- 최병훈 등. 2009. 가구디자인에 있어서 감성적 기능의 개념에 대한 연구 -현대 아트 퍼니처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구학회지 2007.07. Vol. 20(4): 304
- 한국디자인진흥원. 2008 해외디자인사 - 국내 디자인산업과 현황: 3, 4
- (주)가림 디자인 연구소 회사소개자료.
- (주)옛날솜씨 회사소개자료.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0%F8%BF%B9%C0%B6%C7%D5&sm=top\\_hly&fbm=1](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0%F8%BF%B9%C0%B6%C7%D5&sm=top_hly&fbm=1).
- <http://blog.naver.com/excelit?Redirect=Log&logNo=50089762535>.
- <http://blog.naver.com/idasinc?Redirect=Log&logNo=140053332046>.